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8>]한라산보호구역 · 국립공원 지정 주역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7>-한라산 박사 부종휴의 발자취를 찾아(3)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7.07. 00:00:00



전국 조사단과 수차례 답사 공원구획선 결정

한라산 손금보듯 ..자원보고서 등 숱한 업적

4·3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지자 국내의 많은 내로라하는 식물학자들은 앞다퉈 연구테마로 한라산을 주목하고 있었다. 일제때 일찍이 한라산을 '자원의 보고'로 알아차린 일본인 식물학자들이 이미 연구논문을 잇따라 발표한 터여서 광복후 학문적 욕구의 대상이 한라산이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한라산은 여전히 미지의 공간이었다. 한라산과 제주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식물학자가 절실해졌다. 이 때 제주에는 한라산에 정통한 부종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박만규 교수는 부종휴와 채집조사를 함께 다니며 교류했던 대표적인 인물. 박만규는 국립과학관장과 가톨릭대·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긴 뒤 1977년 타계한 식물분류학자로서 국내식물학계 제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중 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한라산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생전 부종휴의 조사·채집·연구업적은 박만규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박만규는 국립과학관장으로 재직하던 1962년 제주도 식물조사단 단장으로 입도한다. 조사단에는 홍대식, 김한행, 엄규백, 박병주 등이 동행했는데 부종휴가 핵심멤버로 참여한다. 이 때 왕벚나무 자생지가 수악(水岳) 서남쪽에서 발견됐다. 한라산의 식물상을 조사하던 박만규와 부종휴는 이때 "한라산의 자연림을 잘 보호하여 국립공원화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제주도의 동·식물상과 지질을 망라한 최초의 한라산종합학술조사는 이로부터 2년 후인 1964년에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 U. C. N)이 '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지역'으로 한라산을 꼽으면서 정부(문화공보부) 차원의 학술조사가 전개된 것이다. 조사단 규모는 무려 56명에 달했다. 문화재보존위원회 제3분과위원장이던 박만규가 단장을 맡고 부종휴도 식물조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한다.

학술조사의 목적은 한라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훗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단계인 한라산 자원조사와 더불어 획선(劃線)결정에 있었다.

당시 조사내용은 4년 뒤인 1968년 '한라산학술자원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공식화됐는데, 한라산에 자라고 있는 식물이 양치식물 2백종 등 1,782종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1957년 이덕봉이 한라산 식물을 1,472종으로 발표한 규모에 비해 10년 사이에 무려 3백10종이 추가됐다. 이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제주의 식물학자 부종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이미 1964년 약학회지에 '제주도산 자생식물 목록(제1집)'을 통해 제주미기록이 상당부분 포함된 3백33종을 발표했던 것이다.

부종휴는 한라산학술조사가 진행됐던 당시의 상황을 '제주도'지 제15호(1964)에서 밝히고 있다.

“한라산의 자연림과 명승을 보존하고 그 지역을 결정지우기 위하여 박만규 교수와 필자 등이 2차의 답사와 몇 차례의 도 당국과의 의견교환 및 합의에 의하여 한라산 자연림의 절대보호지역과 구역선의 결정(11월 20일)을 보게 되었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본도는 관광 민속 학술자원 등의 풍부함과 고유성으로 보아도 능히 국제적 수준에 위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라산은 1966년 10월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으로, 이어 1970년 3월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3년 뒤인 1973년 제주도는 도내 자연자원을 비롯해 문화재와 유적까지 포함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펴냈다. 제주지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로 묶은 것은 당시로서는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

이 종합조사에는 현용준과 김영돈, 홍정표, 진성기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자연자원분야의 연구책임자는 부종휴였다. 그는 이 때 한라산을 비롯한 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에 대해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호관리대책까지 제시할 만큼 이 분야 권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부종휴가 이 해에 당시 최고 권위의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부종휴와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이영배 관장이 일화 한토막을 들려주었다. “만능 홍정표 선생과 한라산 정상에서 마애명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하산 후 부종휴에게 물었더니 마치 손금 보듯이 즉석에서 위치도까지 그려가며 소상하게 알려주었다. 부선생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 보니 한치의 오차도 없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종휴의 능력을 아끼던 이승택 제주지사는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연구 과제에 부종휴를 참여토록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김문홍교수(제주대)는 “이 지사의 당부로

연구비를 부선생의 부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부종휴는 제주대학교에 식물학과가 개설된 1975년 이듬해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 당시 식물분류학을 강의할 책임자로 부종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식물학계에 제주출신의 많은 박사가 배출됐는데 그 씨알은 부종휴였다. 제주지역 후학들에게 제주식물연구의 값진 풍토를 남긴 것이다.

한 후학은 이렇게 되뇌었다. “제주사회가 그동안 부종휴라는 인물을 너무 홀대해온 것은 아닐까요.”

약초자원 연구 몰두...개발·이용에도 관심

한라산의 식물에 심취했던 부종휴는 특히 약초자원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약용식물의 분류학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개발과 이용에까지 눈을 돌렸다.

“본도에 분포하고 있는 약용식물은 대략 4백여종이 있으나 현재 채약(採藥)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불과 50종 미만이다. 당국은 구체적인 5개년 생산계획을 수립해 농민들에게 계몽적인 입장에서 대하여야 할 것이다. 천연으로 분포하고 있는 약초를 계절에 맞춰 채약케 하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기관도 필요하다.”(제주도지, 1962)

부종휴는 약용식물자원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했으며 외국에까지 수출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요즘 제주를 한방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은 눈길을 끌만하다.

약용식물에 해박했던 부종휴는 전국의 유명대학에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광복후 서울대 약대에는 일제때 채집해 놓은 식물분류작업이 과제였는데 부종휴로 하여금 서울대 약대 표본실에 있는 식물표본을 분류하도록 했다. 부종휴는 서울대 뿐만 아니라 부산대와 조선대 약대 표본실 분류작업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했다.

1960년대초 한국산초동호인회의 부회장이던 부종휴는 서울대 약대 임기홍교수 등과 함께 당시 서귀읍 동흥리에 아열대식물원을 조성한다.

[내가 본 부종휴/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종욱교수]

“대학때 부선생 따라 채집...식물학 탁월”

취재진은 식물학자 박만규의 아들인 박종욱씨(52·서울대교수·생명과학부)를 수소문끝에 인터뷰할 수 있었다. 그도 선친의 뒤를 이어 식물분류학자로 활약하고 있다. 박교수는 그가 초등학교때부터 부종휴를 알고 지냈으며 대학 2학년때부터는 선친과 부종휴를 따라 한라산 식물채집에 나섰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부종휴 선생은 저의 선친과 아주 각별하게 지내셨죠. 1960년대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부터 부선생이 서울에 올 때면 우리 집을 자주 찾아 목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선생은 제주 구석구석 어디어디에 무슨 식물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꿰차고 계셨던 분이입니다. 선친께서 물으면 심지어 어느 지점 바위 뒤에 자생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줄 정도였어요. 신기에 가까웠죠.

양치식물에서부터 현화식물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육상식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박하셨어요. 부선생이 채집한 많은 표본이 현재 서울대에 보관돼 있습니다. 선친께서 양치식물 도감을 만들 때에도 부선생의 도움이 컸습니다.”

박교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부종휴 만큼 제주식물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분의 업적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부종휴선생에 대한 가치 평가와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그 업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